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절은  
'친절'입니다"  
12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정의를 외면 말고 원망하지 말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12일) · 주간

대표내선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3호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 “법인법, 규제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조계종이 공포한 법인법이 오는 6월까지 법인 등록 마감을 거쳐 7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인의 재산 및 인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요소가 적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선학원 '반대'... 대각회 '관망'

법인법은 지난해 3월 20일 제정돼 4월 1일 공포됐으며, 시행령은 동년 6월 25일 제정·공포됐다. 공포 후 선학원은 조계종 법인법이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고, 2002년 합의 사항도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 반대 기조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대각회도 분원장 스님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조계종의 정책 방향을 관망하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0년 합의 사항 준수 내용을 부칙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총무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인 규제 조항들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선학원의 경우 법인법 조항 중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법인 인사의 1/3을 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조계종 측의 권한 강화로 선학원의 근거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일선 법인, 규제 조항 부담

선학원과 대각회 등 대표적인 법인들 이외에도 밖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적지 않은 법인들이 규제 조항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법인법 내에는 규제 조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제 12조 정관 개정과 시행령 제 9조 재산 처분 부분이다. 법인법에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명칭·목적·임원·재산과 관련된 정관 변경도 총무원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총무원장의 승인을 거쳐도록 했다. 정관 변경은 법인의 중요한 고유 권한으로 이를 '승인'하는 것은 침해 행위라는 것이 법인법 시행을 우려하는 대제적인 시각이다.

이외에도 임원 해임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를 바로 법인 이사회가 해임 처리를 강제하는 조항(제 20조)을 비롯해 종령에 따라 주지 품신제(제 16조 2항), 법인 산하 사찰

등록 금지(제 18조)도 규제 조항으로 지적된다.

### “법 시행 후 분쟁 소지 가능”

이에 대해 불교 법인 관계 법률전문가들은 규제 조항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계의 한 법인 변호사는 “법인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며 그 필요

### 사업 위한 재산 출연에

중단 승인 등 규제 많아

법인 사찰 건립·등록 금지

### “법인법 취지와 목적

조점 맞춘 개정 필요”

성도 인정된다. 이미 법인 이사회 내 2/3이상을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법인법은 그 목적을 완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산 출연과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것은 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보고만으로도 중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장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가가 인정한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명령을 하는 상황이어서 법 시행 이후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불교계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 원장인 김중규 변호사 역시 법인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 조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모순된 조항들이 있다”면서 “특히 제 2조(정의)의 경우에는 법인 산하 사찰을 인정하지만, 제 18조를 살펴보면 법인 사찰을 보유, 관리,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항 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각회 이사 보광 스님도 “정관 개정은 당해 이사회가 관장할 사안이 지 중단 승인 사안이 아니다”면서 “법인법은 필요하고, 대각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산하 사찰의 민원들이 수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중단 승인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조계종, 관련 협의 시작하나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관련 의견 청취와 협의의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인법에 대한 관심사가 큰 만큼 일부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실제로 교계의 안팎에서는 조계종 중앙총회에 설치된 (재)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이하 대책위)의 재가동을 법인법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대책위는 3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장 성직 스님은 “중단 법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회의에서 모아졌다. 아직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선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들의 우려도 고려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일·신종일 기자

## 교학사, 역사 왜곡 이어 종교 편향까지?

종자연 4일 성명서 발표... “창조과학회 주장 수록” 비판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가 기독교 교리를 반영한 내용을 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학사의 2014년 검·인정교과서 중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지도서에 기독교 창조과학회측 주장을 부적절하게 실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론을 교과서에 실기 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교과서 중 교사용 지도서 130, 131쪽에 실린 ‘탐구하기: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나의 입장 밝히기’의 2, 3번 질문.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서 성적 지향이 유전되거나 선천적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합리적 내용을 담아야 할 교과서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단체의 주장이 여과없이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문제가 된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

발표한 내용과도 대치된다.

종자연은 “창조과학회 생물학 교과서에 창조론을 신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단체 주장을 검토없이 교사용 지도서에 실는 것은 종교와 정교분리를 내세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인증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학사와 집필진, 교과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종용하고 즉각 창조과학회 주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현진 기자

## 불교, 살아있는 불교박람회



### 불교의 모든 것 '불교박람회' 개막

9일까지 진행... 250개 업체·350개 부스 운영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14 불교박람회 가 3월 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이 주최한 '2014 불교박람회'의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장 자승 스님, 유진통 문화체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몽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대회장인 자승 스님은 “불

교박람회는 한국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산업과 문화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9일까지 열린 2014 불교박람회에는 250개 업체가 350개 부스를 운영했다.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망라한 붓다아트페스티벌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토탈스테이, 사찰음식축제 ‘살에 향기를 붓다’도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본지 982호 4면, 979호 20면 보도)

## 조계종 개혁 20주년 사업 일정 확정

법회·세미나 4월 10일... 백서·구술 자료집 발간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을 기념사업이 확정됐다.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이하 추진위)는 3월 6일 2차 회의를 열고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기념 법회와 1차 세미나를 4월 10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4월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종단 개혁에 대한 사진전도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는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승가대 학인,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출세가 관계자, 이웃종교인 등 400여 명이 초청하기로 했으며, 홍보용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해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종단 개혁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학술세미나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세미나에서는 종단개혁의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의미, 성과 등을 집약한 기초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종단 개혁의 미진한 점과 과제,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리게 된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20주년 사업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학술세미나의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11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종일 기자

새 연재 이란 보살의 인과 이야기 28면

나로부터의 시작  
생활속 참선수행프로그램  
제2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2014년 3월 22일(토)~6월 7일(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3:30~8:30, 한마음선원 \*OT, 중간검정, 종단검정일은 오후 2시 부터 시작  
문의 TEL (031)471-6926~7 (매주 월요일 휴무)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 주는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행복선전 원호 스님의 화제의 신간

# 삶은 환타지다

월호 스님의 명쾌한 계승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계승, ‘애착을 버리는 계승’, ‘화를 다스리는 계승’, ‘행복을 부르는 계승’, ‘마음을 보는 계승’ 등 주제별 계승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삶은 환타지다’ 강연 및 즉문즉설 향연이 열립니다. 저자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착순 입장 \*모든 궁금한 점을 통해 상세하게 물어 줍니다!!

■ 월호 스님 지음 | 신국판 328쪽 | 13,500원

민중사 구입 문의: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중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